



이달의 포커스 뉴스

'21년 지역경쟁력지수 **광남성과 하이퐁시** 각 1,2위 차지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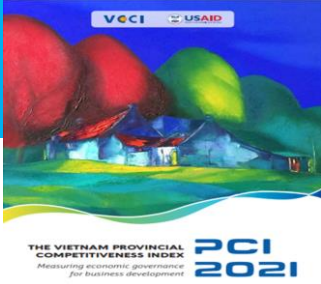
베트남,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6% 인상**

-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논의 끝에 인상폭 및 인상 시기 결정

7P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신용보증기금(KODIT) 19
☑ <기업탐방>	희성전자 고태연 법인장 22
☑ <노무> 직원의 출퇴근중 교통사고시 회사의 보상 유무 전현우 변호사	26
☑ <법률 에피소드> 죄 짓지 말자	김유호 변호사 28
☑ <통관>	FTA활용지원센터 김태운 관세사 30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럼동성>	34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42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47





2021년 베트남 지역경쟁력지수(PCI)를 반영한 투자 가치 지역 찾기

- 베트남의 지방정부 개혁 및 사업 인프라 개선에 대한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
- 2021년 지역경쟁력지수(PCI) 평균성과 하이퐁시 각 1,2위 차지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미국국제개발처는 베트남 지역경쟁력지수(The Provincial Competitiveness Index) 공식 웹사이트를 통하여 매 년 4월 전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PCI리포트를 발간한다. PCI는 지방성·시 정부의 정책 입안자가 지역 경제 및 사업 관리의 병목현상을 식별하는데 유용한 보고서이며, 2005년부터 17년간 베트남 지방성·시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가 되어왔다.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 발전을 위한 PCI 촉진 프로그램 개요



[자료: PCI,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평가 기준

PCI는 10개의 하위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개발 및 기업운영에 관련된 지방성·시의 주요 경제 관리 부문을 평가한다. 다음 10개의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 지방정부의 경쟁지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PCI 평가 기준>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사업 착수 비용 (초기 진입비용) • 토지 접근 용이성 및 안정성 (토지접근 및 소유권) • 투명한 기업 경영 환경과 기업 정보 공개 여부 (투명성) • 낮은 비공식 예산 집행 및 비공식 처리 비율 (시간 비용) • 사업 진행을 위한 관료적 절차 간소화 정도 (시간 비용) • 현지기업과 해외기업의 공정 경쟁 환경 (투명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방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창의적인 리더십 (능동성) • 양질의 사업 지원 서비스 • 건전한 고용 노동 및 교육 정책 (노동 정책) • 공정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능력 및 법적 절차 유지 (법과 질서) |
|---|--|

[자료: PCI Vietna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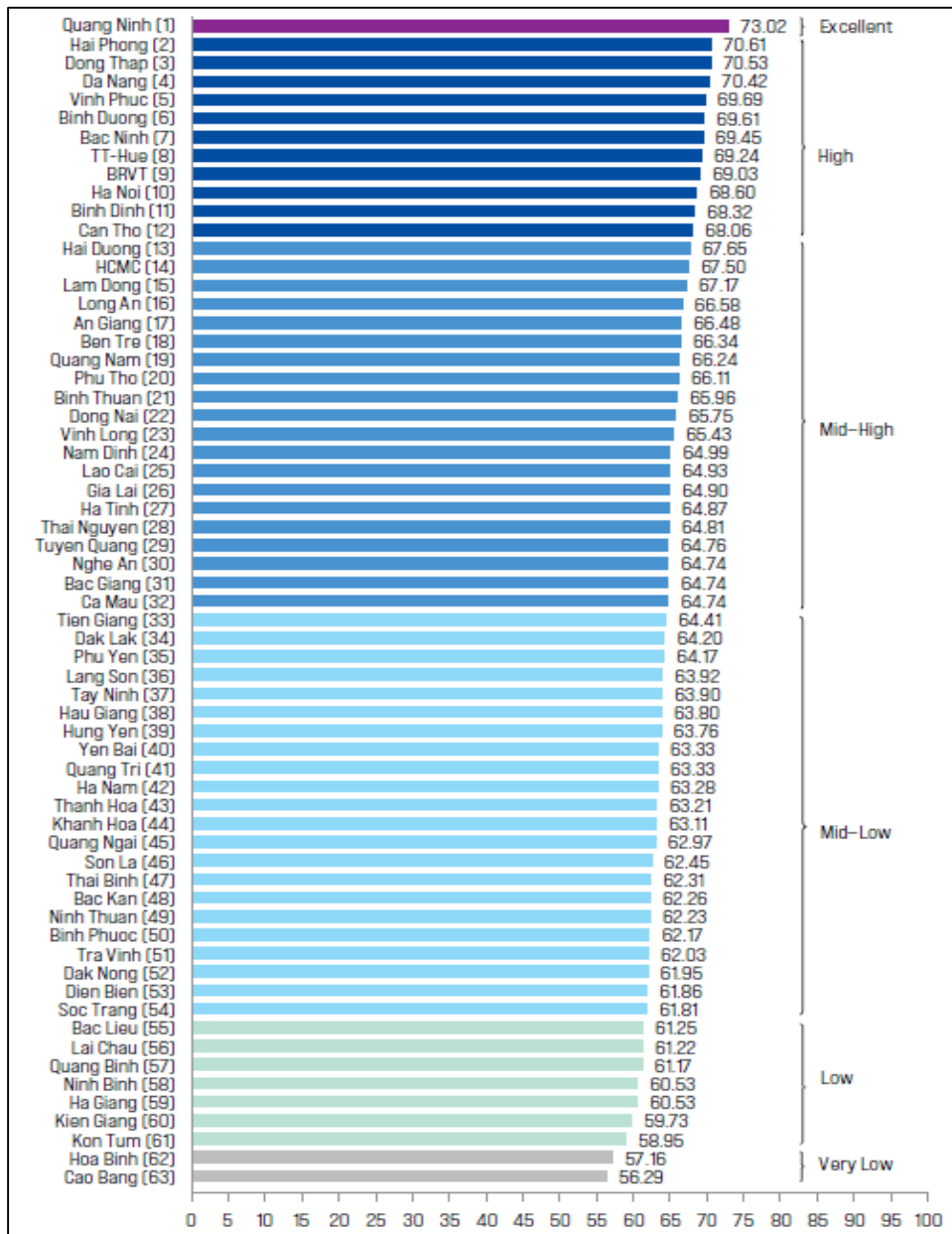


2021년 베트남 지역경쟁력지수(PCI) 순위

광닌성은 2021년 PCI 조사에서 총점 100점 만점에 73.02점으로 5년 연속 1위를 지키는 쾌거를 얻었다. 2위는 70.61점을 받은 하이퐁시이며, 3위와 4위는 각각 동탑시(70.53점)와 다낭시(70.42점)이다. 그 외 5위 빈푹성(69.69점), 6위 빈즈엉성(69.61점), 7위 박닌성(69.45점), 8위 트어티엔후에성(69.24점), 9위 바리아붕따우성(69.03점) 순이었다. 베트남 양대도시로 불리는 하노이시와 호찌민시는 각 10위(68.60점), 14위(67.50점)를 차지했다.

베트남 전역 63개 성·시의 PCI 점수 및 순위는 다음 [링크\(https://pcvietnam.vn/bang-chi-so-cac-tinh-thanh-viet-nam\)](https://pcvietnam.vn/bang-chi-so-cac-tinh-thanh-viet-nam)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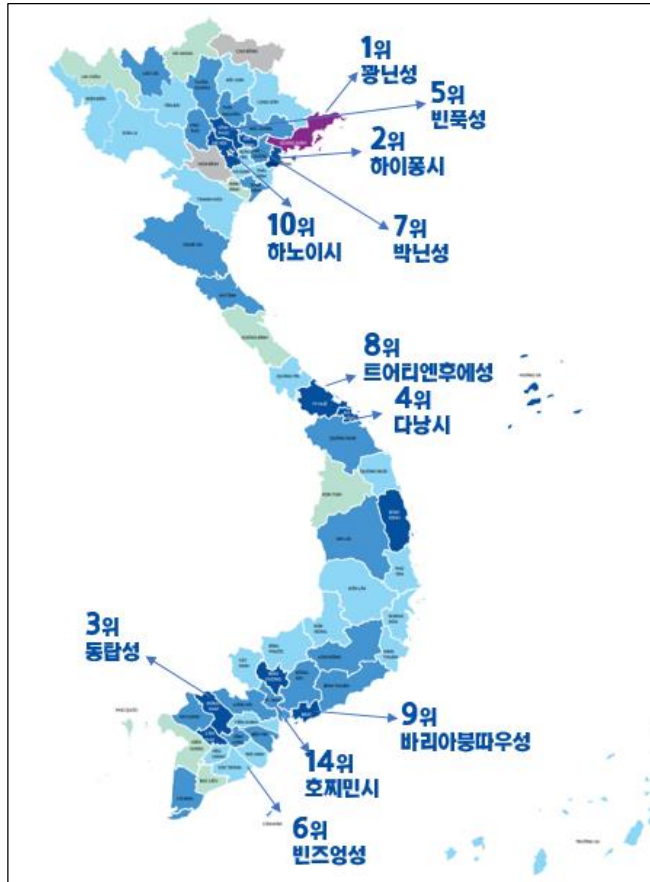
<베트남 지역경쟁력지수(PCI)순위('21)>



[자료: PCI Vietnam 2021]



<베트남PCI지수 상위 랭킹 성시 지도상에서 한 눈에 보기(2021)>



[자료: PCI Vietnam 2021]

2021년 베트남 PCI지수 상위 성시 돌아보기

경영 거버넌스 및 행정절차 효율성 최고, 1위 꽝닌성

꽝닌성은 총점 73.02점으로 2017년부터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올해 PCI 평가 항목 중 꽝닌성은 경영 거버넌스 부문에서 "매우 좋음"으로 평가된 유일한 성이다. VCCI에서 PCI보고서 총 책임을 맡은 저우 아이팅(Dau Anh Tuan) 변호사는 2021년에 꽝닌성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기존 대비 행정절차 처리 시간을 40~50% 단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 차원의 행정 센터 시스템은 모두 현장 5원칙(접수 - 평가 - 승인 - 스탬프 - 결과 반환)에 따라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꽝닌성이 수년 동안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주도해 왔는지 설명했다. PCI 2021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꽝닌성의 온라인 공공 서비스 채택률은 48%로 타 성·시보다 훨씬 높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실, 2위 하이퐁시

2021년 2위는 하이퐁시가 차지했다. 하이퐁시는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결정서'를 발효한 덕분에 2020년 7위에서 무려 5계단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순위인 2위를 기록했다. 하이퐁의 이런 성과는 관료주의적인 행정 절차 개선, 비즈니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시행, 핵심 기반 시설 프로젝트 자원을 집중 등 기업 투자 환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이퐁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또한 하이퐁시는 기업과 정부 부처 담당자와의 대화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주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힘쓰고 있다. 기획투자부, 세무부, 경제 구역 관리위원회와 같은 하이퐁의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 정부 부처의 관리 단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및 개혁 내용을 기업에 공개하는 약속에 서명했다. 하이퐁시는 성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소식을 들으며, 행정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다양한 돌파구를 통하여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투자 진출 기업과 언론에 하이퐁 성정부의 약속 이행에 대해 감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하이퐁시의 투명성 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하이퐁시는 2021년 PCI 조사에서 지방정부 투명성 순위에서 전년 대비 17단계, 능동성 순위에서 10단계, 지원정책 순위에서 2단계 상승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14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거버넌스 역량을 자랑하는 동탑성

동탑성은 총점 70.53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으며 메콩델타 지역에서 선두를 유지했다. 또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동탑성은 14년 연속 베트남 전역에서 최고의 거버넌스 역량을 가진 상위 5개 성 그룹에 선정되었다. 동탑성은 2016년부터 'Coffee Entrepreneurs' 로 알려진 동탑성 정부 관계자와 기업의 정기적인 대화를 개최하여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거버넌스 역량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더불어 개인과 생산 및 기업 시설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모임 및 협동 조합의 설립을 권장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 가치 사슬, 특히 농산물의 가치 사슬을 연결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정적인 경제관리 다낭시

다낭시는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 관리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지역 중 하나이다. 2021년 다낭시의 PCI점수는 전국 4위(70.42점)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 다낭시 역시 행정 절차를 개혁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정기적으로 미팅을 개최하며,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세부 분야 간 실무 그룹을 설립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기업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시 지원 솔루션 제공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 비용 절감 최고 하노이시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시는 2021년 PCI조사에서 전년 대비 1.67점 상승한 68.6점으로 10위를 차지했다. 특히 하노이는 인프라 및 시간비용 절감 차원과 비즈니스 지원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하노이의 투명성 지수는 5.21로 전년 대비 0.6%p 하락했다. 이는 PCI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의 투명성 지수로서, 하노이시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지원서비스 곳, 시간 비용 개선 필요 호찌민시

베트남의 경제수도라는 별명을 가진 호찌민시는 2021년 PCI 평가에서 전국 14위를 차지했다. 호찌민시의 기업 지원 서비스 점수는 10점 만점에 8.54점으로 전년 대비 2%p 상승했으나, 기업 평가에 따르면 시장진입, 투명성 및 노동훈련 등의 평가 항목에서 받은 점수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VCCI 관계자는 호찌민시는 행정 개혁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기업 설립 시 절차 간소화, 시간 비용 단축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시 정부에서 행정 개혁프로그램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기업이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면 정책 구현과 실천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서 더욱 빛난 베트남의 회복 탄력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베트남도 예외가 아니었다. 2021년 베트남의 연간 GDP 성장률은 2.58%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코로나19 유행 중에 생산시설 및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의 비율은 낮았다. 이후 코로나19 신규 발생 비율이 현저히 억제 되면서 베트남 정부는 2021년 10월 11일자 ‘코로나19 에 대한 유연하고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통제 시행령’ (Decision 128/NQ-CP)을 공포하고 베트남의 핵심 사업 복원 및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2022년 1월 11일자 ‘사회 경제적 회복 및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 결의안’(43/2022/QH15)에 기초하여 정책을 펼쳐 유통, 물류, 생산, 비즈니스 서비스의 회복을 도모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22년 1분기 신규 설립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했으며, 총 등록 자본은 전년 대비 21%, 추가 등록 자본은 34.5% 증가했다. 또한 베트남 통계청은 올 5월 보도자료에서 2022년 1분기 GDP는 2020년 1분기 대비 5.0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 했다.

FDI기업,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 향상

외국인직접투자(FDI)기업들은 2021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세계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악전고투를 하면서도 베트남의 사업성과 잠재력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조사에서는 향후 2년동안 사업 확장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업의 40.8%가 투자 확대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6.9%p상승한 47.7%의 기업이 투자 확대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하여 수출가공기업(EPE)이든 내수유통기업이든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사점

2021년은 베트남은 물론 전세계의 정·재계에 도전적인 한 해였다. 그러나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PCI 2021조사 결과는 베트남의 각 성·시별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능동적으로 도우려는 노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1년의 PCI조사는 평가 항목을 구체화 하여 기존 대비 기업 환경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측정했다는 면에서 찬사를 받았다. 또한 베트남 총리는 2022년 2월 28일자 ‘사회경제적 개발 목표의 실행 평가’ 시행령(288/QD-TTg)을 발표했는데, PCI 자료가 이번 시행령의 토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PCI는 베트남 지방성·시의 거버넌스 능력을 기업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지방 행정 개혁을 촉진하는 것에 효과적인 도구로서 매년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진출을 앞둔 기업들은 진출 전 단계에서 베트남 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PCI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및 참고한다면 최적의 입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6% 인상

- 코로나19로 인한 동결로 2년 만에 인상
-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논의 끝에 인상폭 및 인상 시기 결정

베트남 최저임금 결정 절차

베트남 최저임금은 국가임금회의를 구성하고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해 정부 승인을 받는 절차로 결정된다. 통상 11월에 정부 승인을 받아 이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지만 이번에는 7월 1일부 인상이 결정됐다. 국가임금위원회는 베트남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정부 대표 5인, 근로자 대표 5인, 사용자 대표 5인으로 구성한다.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이 위원장 역할을, 노동총연맹 부총연맹장·베트남 상공회의소 부회장·베트남 협동조합연맹 부연맹장이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당초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의견

○ 사용자 측, 최저임금 인상 시기에 반대

2차 국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임금 인상에는 동의했으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초가 되기를 기대했다. 임금 조정 시기가 회계 연도에 맞춰 내년 초가 되면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근로자를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겨 최소 1년은 기업의 생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2차 국가임금위원회 이후에는 베트남 내에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산물가공수출협회, 섬유봉제협회, 전자기계협회 등의 경제단체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으로 시행안 관련 베트남 총리실에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 근로자 측, 최저임금 인상폭 7% 제시

노동총연맹은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급여 협상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2년간 동결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노사관계의 불안이 야기되고 있으며, 협상이 불발되면 근로자들의 집단 파업 등 노사쟁의가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고 덧붙이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었다. 또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됐던 점을 반영해 인상폭을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의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폭인 평균 7.4% 수준보다 낮지 않은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별 최저임금

베트남은 5개의 중앙직할시와 58개의 성을 1~4 지역으로 구분해 경제 수준에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발표 시 지역 구분을 함께 발표했다.

구분	기존 최저월급	7월 1일부 최저월급	7월 1일부 시간당 최저임금
1지역	VND 4,420,000	VND 4,680,000	VND 22,500
2지역	VND 3,920,000	VND 4,160,000	VND 20,000
3지역	VND 3,430,000	VND 3,640,000	VND 17,500
4지역	VND 3,070,000	VND 3,250,000	VND 15,6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해외 사업장 적용 가능성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 해외사업장 위험관리 ESG 경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의의(意義) 및 책임주체 등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재해 발생 시 책임 주체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취지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종사자 및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수행하게 한 경우 이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시키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법인에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 및 해외사업장에 적용 가능 여부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을 기본 법규 의무 준수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주를 처벌하는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적용 범위를 규정하면서 중대재해 발생 장소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해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실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처벌법규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일으킨 범 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속인주의의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법 적용의 현실적 한계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해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한 한계는 있다. 형사 구성 요건 관련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불이행한 것과 발생한 재해 사이에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실제 증거 수집 등의 수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정 한계가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법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나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은 단순히 법적용과 처벌에 측면에서가 아니라 최근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한 ESG* 측면에서도 해외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ESG 경영적 측면에서도 위험요인을 통제하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경영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SG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기업의 최근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음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시 사후 구제수단

베트남은 다른 국가와 달리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비롯해 저작권, 지리적 표시 및 식물품종보호 등을 모두 통합해 규율한 2005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 기본체계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발효 이후 2009년, 2019년 각 두 차례 개정했다. 현행 개정 지식재산법 외에 기타 국회에서 제정한 관련 법률,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Decrees), 관련 관청(Ministries)에서 제정한 시행규칙(Circulars),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국립 지식재산권청 및 국립 저작권청이 제정한 내부 규정 등이 베트남 지식재산권을 규율하고 있다.

지재권 등록 및 보호

기본적으로 지재권은 지재권으로 등록된 국가에서만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한국에서 상표, 특허 등의 지재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당연히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등록을 완료한 상표, 특허라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상표권자, 특허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 법에 따른 각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이미 출원이 이루어진 지재권과 동일한 내용의 지재권을 베트남에서 출원하려는 경우,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91조 및 베트남이 가입한 파리조약에 따라 베트남 출원일보다 앞선 한국에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베트남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표와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베트남 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재권 침해 시 사후 구제수단

베트남에서 지재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사후 구제 절차가 있으며 민사적 및 형사적 구제는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행정적 구제는 경찰, 시장관리국, 세관, 인민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후 조치로 실무에서 가장 선호되는 수단은 행정적 구제로 (1) 다른 절차보다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2) 모조품 몰수, 폐기 등 직접적인 구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3) 행정 조사를 통해 침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확보와 관련 정보 확인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제재가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해보상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보상 및 피해에 대한 추가 구제가 필요한 경우 침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이 때 민사소송 과정에서 행정 조사결과 등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재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이 베트남 국외에서 수입돼 유통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 수입되는 모조품을 통관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세관에 모조품의 수출입 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베트남의 수입과일 불 속에서 인기있는 한국 과일은?

- 한국산 과일은 좋은 맛과 높은 품질, 안전성 등을 바탕으로 시장성 검증 완료
- 한국의 샤인머스켓, 딸기 큰 인기, 프리미엄 마케팅으로 시장 진출

베트남 과일시장 규모

글로벌 시장조사기업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판매된 과일의 총 중량은 약 711만 톤이다.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유로모니터는 올해 베트남의 과일 총소비가 전년 대비 6.5% 증가한 75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과일 소매시장에 국한해서 보면 지난 2017년 베트남의 과일 소매시장 규모는 약 49억 달러로, 거래된 과일의 중량은 약 393만 톤이었다. 베트남 소비자의 소득 증가에 힘입어 2017년 이후 베트남 과일 소매시장의 거래금액은 4년간 연평균 약 14% 증가해 2021년에는 83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빠르면 2024년에는 1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의 청과물 수입 현황

베트남의 청과물(과일 및 채소류) 수입액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7년부터 코로나19 발발 직전인 2019년까지 청과물 수입시장은 연평균 약 7% 성장해 2019년 수입액이 약 17억80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베트남이 활발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고 동시에 수입 절차 간소화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조치 등을 단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청과물 수입시장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빚겨나갈 수 없었다. 베트남의 2020년 청과물 수입액은 약 130억 9,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26% 감소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2021년에는 워드코로나 시기에 접어들면서 수입 규모가 다소 회복해, 전년대비 13% 증가한 1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기있는 수입과일 종류

2020년 기준 베트남에 가장 많이 수입되는 3대 과일은 사과, 포도, 체리로 주로 베트남에서 재배가 어려운 온대 과일 품종이다. 키위, 딸기, 석류, 체리, 자두,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도 점차 베트남 시장에 선보여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많이 재배되는 오렌지, 두리안, 망고스틴, 람부탄 등 열대과일 역시 수입이 되고 있는데 비수확기 내수 공급부족분을 채우거나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함이다.

한국 과일 수입 동향

베트남에서 정식 수입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한국산 과일 품목은 딸기, 배, 사과, 포도, 감 등 5개 종류에 불과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베트남의 신선 포도(HS Code 080610) 수입액은 약 10% 감소하였으나 대한민국 수입은 2019년 약 410만 달러에서 2021년 643만 달러로 무려 57.1% 증가하였다. 한국산 포도 중 특히 샤인머스켓 품종이 베트남 상류층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베트남 중부지역 기업지원세미나 참관기

- 세무 및 노무 법령 등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현안 점검
- 모호한 베트남 법 조항, 분야별 전문가와 사전체크 필수

베트남 세법 및 세무조사 동향

최근 베트남 세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코로나19관련 손금인정 규정,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을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3-the-spot(공장 내 식사, 숙박, 근로)에 따른 숙식비용과, 백신 테스트, 구매 및 접종 비용 등 복리후생비, 코로나19로 인한 9개월 미만 임시 운휴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기업 손금으로 인정하여 기업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소비진작을 위해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10%에서 8%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베트남 고용노동 현안

2021년 노동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요건이 강화된 점을 들 수 있다. 노동허가증은 전문가, 관리자, 운영감독자, 기술자 등의 명목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2021년에는 주로 한국진출기업들이 신청하던 전문가에 대한 노동비자 인정 요건이 대학 이상의 학위 및 취업분야 3년 이상의 경력 혹은 해당 취업분야 자격증 및 5년 이상의 경력으로 강화되었다. 이에 진출기업들은 ‘전문가’ 외에 ‘관리자, 운영감독자’ 등 다른 명목의 노동비자 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는 베트남 정부와 산업인력공단 혹은 K-MOVE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가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양국간 MOU 체결을 협의하고 있다.

베트남 관세, FTA 및 수책관리

베트남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 혹은 수출가공기업(EPE) 진출기업들이 많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면세 수입물품(원자재 등)에 대한 관리(수책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관할 세관에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수책보고를 해야한다. 수책관리에서 진출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공정투입 후 남은 스크랩(Scrap)과 불량품(NG)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이다. 스크랩과 불량품은 정확한 소요량 산정을 위하여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며, 차후 세관 정산보고서 작성 및 세관 감사에 근거 자료로서 최대 5년간 보관이 권장된다.

시사점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베트남 중부지역 진출기업들은 최근 개정된 노동법 및 노동비자 이슈, 코로나19여파로 인한 비용의 회계처리 등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설명, 질의응답 및 기업간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베트남의 법 조항은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 회계·관세·노무 등 중요한 분야일수록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 위반의 소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KOTRA 다낭무역관의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진출기업 경영애로 상담데스크를 상시 운영하며, 이메일과 유선을 통해서도 애로 및 문의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 올 5개월간 베트남 해산물 수출 규모 17억 달러 도달

베트남은 올 5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17억 달러 규모의 해산물을 수출함. 이는 연간 해산물 수출 목표의 35%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임. 특히 참치는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4억 6,200만 달러 규모가 수출됐으며, 갑각류 및 연체동물류(오징어, 문어 등)는 각각 47%, 28% 증가함. 중국 외에 미국, 일본,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계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이들 시장으로 수출되는 계의 비중은 전체 계 수출액의 91%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대미 수출이 전면 재개 되면서 갑각류의 대미수출도 증가함.

[VN Express, 6. 23]

▶ 대한항공, 주2회 다낭 직항 노선 재개, 7월 27일부터 일정기편 운항

대한항공은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6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인천발 다낭행 주2회 직항편 운항을 재개함. 7월 27일부터는 매일 정기편을 운항할 계획임. 이번 대한항공의 다낭 직항 노선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 재개되는 것임. 오는 10월부터 6개 항공사가 다낭 직항 노선을 재개하여 한국의 주요도시와 매주 50편의 항공편을 연결할 계획으로 알려짐.

[Hanoi Times, 6. 23]

▶ 한국, 베트남산 주조 동관 반덤핑 조사 연장 결정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생산된 HS 코드 7411.10.0000의 코팅 주조 동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2개월 연장 한다고 밝힘. 한국무역위원회는 제조사와 수입 업체에 대한 추가 정보 검토에 시일이 더 소요된다고 밝히고 최종 결과 통보일을 기존 6월 27일에서 8월 27일로 연장함. '22년 4월 22일자 잠정결론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의 덤핑마진은 10~14.78%, 중국 기업의 마진은 15.95%~42.03%였음. 한국 관세청은 베트남산 및 중국산 주조 동관이 아직 한국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힌 흔적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임시조치를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함. 한국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베트남산 주조 동관은 한국시장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산은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베트남 정부포털, 6. 20]

▶ 부가가치세 8% 감면 시행 걸림돌 제거

정부는 2020년 10월 19일자 시행령(No.123/2020/ND-CP)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2022년 6월 22일자 개정 시행령(41/2022/ND-CP)을 공포함. 이는 정부의 결의안(No.43/2022/QH15)에 따른 면세 및 세금감면정책을 규정하는 정부의 2022년 1월 28일자 시행령(No.15/2022/ND-CP)의 재정 및 통화 정책에 관한 국회 및 사회의 경제적 회복 및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함. 개정 시행령(41/2022/ND-CP)은 부가가치세가 8%로 감소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인보이스 발행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따라 사업자가 수입의 백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VAT)를 계산하는 경우 판매 인보이스에 감소된 금액을 명시해야 함. 또한 개정 시행령은 전자세금계산서 양식 No.01/TB-SSDT를 대체하기 위해 Form No. 01/TB-HDSS에 따라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오류 수신 및 처리에 대한 통지를 첨부함.

[베트남 정부포털, 6. 20]



▶ **올 첫 5개월동안 수출입 규모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

베트남 관세총국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베트남의 수출입규모는 3,061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42억 달러 규모 증가했다고 밝힘. 올 5개월간 수출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한 1,532억 9,000달러, 수입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1,528억 6,000달러이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출입규모는 2,114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279억 4,000만 달러) 증가함. 대륙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하고 1,986억 3,000만 달러 규모를 교역한 아시아가 최대 교역 대륙이며, 다음으로는 미국(18.4%증가, 647억 8,000달러), 유럽(9.8%증가, 323억 9,000만 달러), 오세아니아(29.9%증가, 70억 3,000만 달러), 아프리카(0.4%증가, 33억 달러) 순임.

[베트남 정부포털, 6. 19]

▶ **한국-베트남, 6월 17일 ‘뉴노멀시대의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과 베트남은 6월 17일 호찌민시에서 열린 ‘뉴노멀시대의 투자전략 세미나’에서 한-베트남간 투자 및 혁신 협력 효율성을 개선할 방안을 공동 모색함.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은 올 5개월간 외국인투자자 신규 투자 규모는 7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증가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보여주었고, 산업 생산지수(IIP)는 물론 조업규모 역시 전망이 밝다고 밝힘. 덧붙여 한국은 누적 투자규모 790억 달러, 9,288개 사업을 가진 대베트남 최대 투자국이며, 올 5월 기준 베트남 전체 FDI규모에서 18.5%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힘. 특히 한국 기업은 가공, 제조, 전자, 하이테크, 물류, 건설 분야를 중점으로 63개 성시 중 59개 성시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힘. 이에 대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관계자는 베트남과 한국은 교통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민관협력사업(PPP)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베트남 정부가 G2G 협력을 통하여 ODA 및 PPP프로젝트를 최적화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타당성을 높일 것을 제안함.

[Vietnam Plus, 6. 18]

▶ **KOICA, 베트남의 ‘금융부문 조기경보 역량 강화를 위한 5개년 사업’ 지원 착수**

베트남 금융감독원(NFSC)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6월 15일 하롱에서 베트남의 ‘금융부문 조기 경보 및 비상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5개년 사업’ 착수식을 공동 주최함. 이번 5개년 사업에서 KOICA를 통하여 한국이 공적개발원조자금(ODA)을 지원하며, 베트남 금융감독원(NFSC)이 주체가 되고 베트남 재무부, 베트남 중앙은행, 베트남 기획투자부 등이 협력하여 베트남의 은행 증권 및 보험 등 금융부문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됨. 베트남 금융감독원(NFSC) 부회장은 베트남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위원회를 조직하고 베트남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해외 금융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이 진전 될 수록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 및 해외 금융기관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라고 기대함.

[VN Express, 6. 15]



▶ HSBC, 2022년 베트남 연간 인플레이션 3.7%에서 3.5%로 하향 전망

HSBC는 베트남의 2022년 연간 인플레이션을 기존 3.7%에서 3.5%로 0.2%p 하향 전망함. 베트남 재무부 장관 역시 베트남은 식량의 40%를 자급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힘. HSBC는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이 2022년 하반기에 정부 목표인 4%를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연간 인플레이션은 4%이하로 유지될 것이라 추정함. HSBC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 베트남 중앙은행이 2022년 3분기 이자율을 50bp 조정 한 후에 2023년 각 25bp씩 3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봄.

[VN Express, 6. 15]

▶ 미국 재무부, 베트남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미국 재무부는 6월 10일 발간한 '미국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정책 보고서'에서 미국 대외무역의 약 80%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 국의 정책을 검토 및 평가함. 미국은 2015년 발효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의 주요 무역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인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 초과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 초과 외환 순매수의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무역제재를 가함.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개 중 2가지를 충족하면 환율조작 전 단계인 환율 관찰대상국이 되며 베트남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4월 해제된 바 있음.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12월 발표한 보고서 대비 스위스와 아일랜드를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시켰으며, 베트남과 대만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추가함. 이에 따라 환율관찰대상국으로는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멕시코, 베트남' 12개국 지정됨. 미국 재무부는 베트남의 경우 중앙은행과 베트남 정부가 2021년 7월 통화 조작을 자제하고 환율 관행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많은 진전을 보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환율관찰국으로서 지속하여 감시할 것을 밝힘.

[베트남 정부포털, 6. 13]

▶ 베트남 휘발유가격, 4월 12일부터 두 달 동안 6연속 상승

6월 13일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2022년 4월 12일 이후로 베트남의 휘발유 가격은 6연속 인상하여 6월 13일 E Ron 92 휘발유는 기존 조정가격 대비 리터당 880동 오른 리터당 31,110동, Ron95 휘발유는 기존 조정가격 대비 리터당 800동 오른 32,370동에 이르러 최고치를 경신함. 휘발유 가격은 2022년 상반기 조정기간 동안 총 12번 상승했으며, 4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6연속 상승함. 4월 21일 조정일 휘발유 가격 대비 Ron 95가격은 리터당 5,060동, E5 Ron92 가격은 리터당 4,640동 인상됨. 산업무역부는 세계 유가상승 원인으로 EU가 러시아에 석유수출 규제를 하면서 전세계 유류 수요대비 공급이 축소되고, OPEC+가 러시아의 공급 감소를 상쇄할 만큼의 능력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함. 이에 따라 베트남의 각 부처는 휘발유 가격 안정을 위하여 휘발유 및 가스 제품에 대한 세금을 추가 인하하여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을 촉구함.

* 참고기사: [베트남 산업무역부 세계 유가 및 베트남 정부 조정 휘발유가격 고시 \(2022.06.13\)](#)

[The Saigon Times, 6. 14]



▶ 베트남, 7월부터 월 평균 최저임금 6% 인상 결정

베트남 정부는 6월 12일자 최저 임금 인상(Decision No.38/2022/ND-CP)시행령을 승인하고 7월 1일부터 월 평균 최저임금을 약 6% 인상하기로 함 .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1급지는 현 4,420,000동(190.48달러)에서 4,680,000동(201.68달러)으로 26만동(11.2달러) 인상, 2급지는 3,920,000동(168.93달러)에서 4,160,000동(179.27달러)으로 24만동(10.34달러) 인상, 3급지는 3,430,000동(147.81달러)에서 3,640,000동(156.86달러)으로 21만동 (9.05달러)인상, 4급지는 3,070,000동(132.3달러)에서 3,250,000동(140.06달러)으로 18만동(7.76달러) 인상됨. 최저 시급의 경우 1급지 최저 시급은 22,500동(0.97달러), 2급지 20,000동(0.86달러) 3급지 17,500동(0.75달러) 4급지 15,600동(0.67달러)으로 7월 1일부터 기존 대비 인상된 신규 시급이 적용될 예정임.

* 참고자료 : ['22년 6월 12일자 최저임금인상 시행령\(Decision No.38/2022/ND-CP\)](#)

[베트남 정부포털, 6. 12]

▶ 베트남, 순환경제개발계획 승인

레 민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는 6월 7일 베트남 순환경제개발계획(Decision No.687/QD-TTg)결정서에 서명함. 2030년까지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집약도를 최소 15% 줄이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할 목표를 세움. 또한 2025년까지 베트남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85%를 재사용 및 재활용하고,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감소시키고,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 촉진을 목표로 함. 베트남 순환경제모델 표준에 따라 도시에서 수집 및 처리 되는 고품폐기물의 양은 2050년까지 기존 대비 50%에 도달해야 하며, 도시 유기 폐기물은 100%, 농촌 유기 폐기물은 70%가 재활용되어야 함.

* 참고자료: ['22년 6월 7일자 베트남 순환경제개발계획\(Decision No. 687/QD-TTg\)](#)

[Vietnam Investment Review, 6. 10]

▶ 미국, 청정에너지 생산 촉진을 위해 베트남산 태양광 패널에 24개월간 수입세 면제

베트남의 내수 철강 거래 가격은 톤당 30만~31만 동(약12.93~13.37 달러) 하락한 톤 당 16만9,200동~17만4,200동(7.30~7.51달러)을 기록하였으며, 국내 철강 가격은 3주간 5연속 하락함. 북부의 Hoa Phat 철강은 CB240 및 D10 CB300 에 대해 기존대비 톤 당 약 30만 동 하락한 톤 당 16만 9,500동~17만 5,100동으로 철강 내수 거래가를 조정하였으며 남부에서는 각 CB240 및 D10 CB300 의 철강 거래 가격이 톤당 30만 동 하락한 톤 당 16만 9,500동(7.31달러)에서 17만 4,000동(7.51달러)으로 거래됨. 국내 철강 가격이 급등 이후 5월 11일부터 5연속 하락한 원인은 철강 빌렛과 투입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임. 철강 생산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은 3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철강 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임.

[Vietnamnet, 6. 8]



▶ 재무부, 유류세 추가 인하 제안

재무부 장관은 6월 8일 제 15대 국회에서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로 유류세 추가 인하를 위한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베트남의 연료 가격이 주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국회는 올 초 유류에 대한 환경세를 낮추는데 동의 했다고 언급한 바 있음. 또한 유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와 함께 추가 감세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연료 가격은 세금뿐만 아니라 공급법에 의해 좌우된다고 덧붙임.

[Nhan Dan, 6. 8]

▶ 미국, 청정에너지 생산 촉진을 위해 베트남산 태양광 패널에 24개월간 수입세 면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24개월간 수입세를 면제할 것을 발표함. 2019년 말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제치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태양광 패널 설치 용량에 도달한 바 있음. 베트남전력공사(EVN)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베트남은 16,504MW의 태양광 생산 규모를 보유하고, 가장 높은 태양광 발전 용량을 보유한 상위 10개국 중 하나이며 전 세계 태양광 발전용량에서 2.3%의 비중을 차지함.

[베트남 정부포털, 6. 7]

▶ 베트남 기업 20개사 한국 킨텍스에서 열린 SEOUL FOOD 2022 참가

6월 7일 대한민국 서울 킨텍스(KINTEX)에서 개막한 서울국제식품산업전(Seoul Food 2022)에 베트남 기업 20개사가 참가함. 주최측은 서울 푸드 2022에서 참가기업의 글로벌 푸드 동향 및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울 푸드 어워드 2022, 푸드 잡 페어, 비즈니스 바이어 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한-아세안센터는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무역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음.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10일까지 개최되며 주최측은 약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함. 행사에 참여한 기업 중 하나인 TS Food 대표는 베트남 야채 및 과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바이어를 찾기 위해 최초 참가했으며, 베트남 농업은 수출 잠재력이 크다고 전함.

[Hanoi Times, 6. 7]

▶ 베트남 기업의 신규 해외 투자, 올 5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산하 투자청(FIA)에 따르면 올 5개월 동안 베트남 현지기업의 신규 해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2억 9,300만 달러에 도달함. 올 1월부터 5월까지 베트남의 총 해외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나 이는 2021년 1월~5월 중 발생한 빈그룸의 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때문으로 인 것으로 밝혀짐. 올 1월부터 5월까지 베트남 현지 기업은 12개 분야에서 해외 투자를 했으며, 이 중 제조 및 가공업은 2억 440만 달러, 8개 프로젝트로 베트남의 아웃바운드 투자에서 1위를 차지함. 은행 및 보험업은 전체의 10.4%, 약 3,534만 달러, 4개 사업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광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은 그 뒤를 이음. 2022년 5월 기준 베트남의 해외투자 누적 사업 수는 1,555개, 누적 투자규모는 216억 달러로 이 중 국영기업의 해외 투자가 139개 사업, 116억 달러,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8%를 차지함. 현재까지 투자된 해외투자사업의 대부분은 광업(32.3%), 농림어업(15.8%)이며, 국가별로는 라오스(24.8%), 캄보디아(13.6%), 베네수엘라(8.5%) 순임.

[Vietnam Investment Review, 6. 7]



▶ 2022년 8월 1일부터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VKFTA)에 따라 개정된 항목별 규칙(PSR) 적용

2022년 6월 1일자 개정 시행령(No. 09/2022/TT-BCT)에 따라 한-베트남 양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정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VKFTA)에 따라 개정된 제품특정규칙(PSR)을 발효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특히 HS 코드 제6101호~제6117호, 제6201호~6212호 및 제6215호~제6217호에 대한 해당 원산지 기준의 수정 범주의 속하는 대부분의 의류 제품에 적용됨. 또한 HS 2012 버전에서 HS 2017 버전으로 HS 레벨 6 번호의 97개 항목별 규칙(PSR) 목록의 개정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 참고자료: [2022년 6월 1일자 개정 시행령\(No. 09/2022/TT-BCT\)](#)

[Hanoi Times, 6. 3]

▶ SSC, 한국거래소(KRX) 도입 시스템 완성 촉구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베트남 주식 시장 감시 기관인 국가증권위원회(SSC)에 한국의 증권 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가 제공하는 새로운 주식 거래시스템 도입 및 가속화를 촉구함. 2012년 하노이주식거래소(HoSE)는 한국거래소(KRX)의 모델을 활용하여 베트남 현지 주식 시장에서 사용할 새로운 IT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KRX와 6,000억 동(약 2,614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 한 바 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도입이 미뤄짐. 베트남 증권 거래소가 주식 거래의 불규칙성을 감지하기 위한 경고 시스템을 구축 할 것을 촉구했으며 장기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SSC가 현재의 법적 프레임 워크를 수정하고 주식 시장 관리의 규정을 해결 할 필요성을 강조함.

[Hanoi Times, 5. 31]

▶ 팡닌성, 폰툰 다리 재개통

베트남 북부 팡닌성 몽까이시 하이옌에 위치한 폰툰 다리가 2월 26일부터 3개월 이상 허가가 중단된 이후 공식적으로 다시 재개통 됨. 5월 30일부터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된 30대의 화물 차량과 타잉 닛(Thanh Dat) 항구에 보관된 30대의 차량이 폰툰 다리를 통해 통관 절차를 완료한 바 있음. 이 국경 다리를 통한 상품의 수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상품 통관 복원 솔루션에 대한 활발한 교류와 토론을 가짐. 일일 통관 시간은 베이징 기준 09:00~17:00, 하노이 기준 08:00~16:00까지임.

[Nhan Dan, 5. 30]

▶ 빈그룹, 인텔과 협력하여 스마트 솔루션 기술 개발

5월 27일 빈그룹은 빈훙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적용 될 수 있는 5개 분야에서 인텔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양사는 5G 지원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솔루션, 스마트 제조 공정, 멀티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Mobileye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포함한 첨단 시스템을 협력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VinFast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제조를 위한 VinES 배터리 제조 및 공장 IoT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구축에도 협력할 계획임.

[Hanoi Times, 5. 27]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Song Cau Green Wind Power Plant (Phase 1)
 - Dung Quat Refinery Expansion and Upgrading
-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oohopark@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Song Cau Green Wind Power Plant (Phase 1)

발주처	○ 기관명 : Song Cau Green JSC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Phu Yen성 ○ 규모 : 약 76 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펀딩 등 ○ 프로젝트 단계 : 현재 토지개간 진행 중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ea : 14.5ha - Capacity : 총 49.94MW (4.54MW x 11)

- Dung Quat Refinery Expansion and Upgrading

발주처	○ 기관명 : Vietnam Oil and Gas Group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Quang Ngai성 ○ 규모 : 약 1,200 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펀딩 등 ○ 프로젝트 단계 : 2022년 4분기 입찰 예정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a 확대 : 148,000 barrels/day → 171,000~192,000 barrels/day



신용보증기금(KODIT, KOREA CREDIT GUARANTEE FUND)

신용보증기금 하노이사무소 전보건 소장

■ 신용보증기금 소개

- **(설립배경)**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 1976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 **(주요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지난 46년간 신용보증, 신용보험, 경영지도, 컨설팅 및 인프라보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금융산업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 위기 시마다 신속한 보증지원으로 시장 안전판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실적)**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 설립 이래로 신용보증 총 1,007조원 공급, 신용보험 206.3조원 인 수, 보증연계투자 3,93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말 기준 국내 중소기업 대출금액 886조원 중 8.9%인 78.6조원을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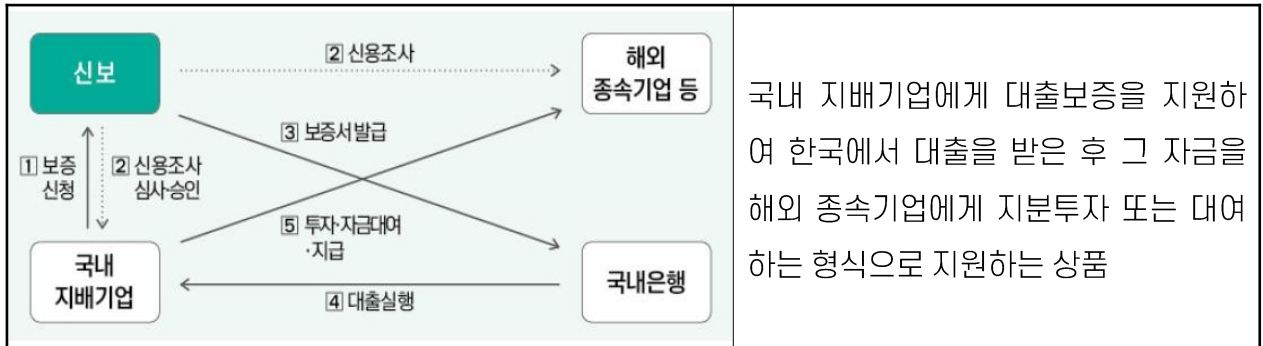
※ 신용보증기금 총 사업규모(2021년말) : 111조원
신용보증 78.6조원, 신용보험 20.2조원, 인프라보증 12.7조원

■ 신용보증기금 하노이사무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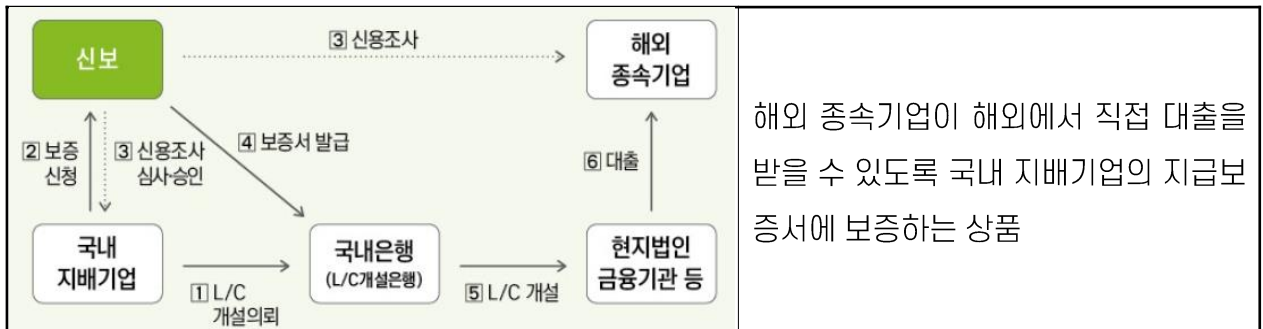
- **(개소배경)** 신용보증기금 하노이사무소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3월 베트남 호치민에 직원을 파견한 후 2020.12월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 **(주요업무)** 신용보증기금 하노이사무소는 해외보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보증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해외보증 신청이 있을 경우 베트남 종속기업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해외보증 지원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보증 : 해외투자자금보증 구조>



<해외보증 : 해외사업자금보증 구조>



- (지원실적) 신용보증기금 하노이사무소는 기업의 금융니즈에 맞춰 해외투자자금보증과 해외사업자금보증을 통해 2018년도 7개 기업, 73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2021년도에는 70개 기업에 총 1,32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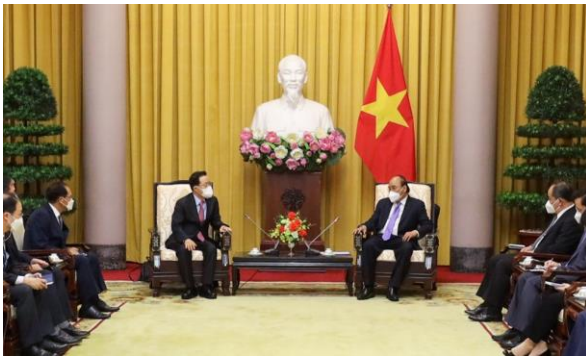
<베트남 진출기업 지원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73억 원	751억 원	1,226억 원	1,321억 원
업체수	7개	56개	78개	70개



■ 신용보증기금 하노이사무소 향후 계획

- (보증확대) 신용보증기금 하노이사무소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증수요기업을 발굴하여 2022년도에는 2,000억원의 해외보증을 공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보증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비금융지원)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하면서 겪게 되는 재무회계, 노무관리, 수출입통관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컨설팅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해외컨설팅 사업은 우리기업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여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총 컨설팅비용의 약 80%를 10백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네트워킹 강화) 베트남 재무부, 기획투자부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응우옌 쉐언 폭 베트남 주석 예방



베트남 중소기업개발기금 업무협약 체결



“우리가 베트남의 토종기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희성전자 고태연 법인장(짱채공단 한국투자기업연합회 회장) 인터뷰



희성전자는 어떤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베트남비즈니스뉴스 독자 여러분! 이렇게 지면을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희성전자는 희성그룹의 5개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희성그룹은 전세계에 걸쳐 약 2만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희성전자는 해외에 7개 사이트를 확보하고 있고 국내에는 파주, 대구 등 2개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는 중국에 3개 법인이 있고 그 밖에 폴란드, 이집트,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지요. 주로 LG전자 및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파트너사입니다.

희성전자 베트남 법인은 언제 설립되었나요?

2015년에 투자허가를 받았구요. 양산은 2017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생산제품은 자동차용 전장제품하고 OLED TV부품입니다. 종업원수는 약 600명이며, 매출은 1,500억원 가량입니다. 하이퐁 짱채 공단에 입주해 있고 부지규모는 42,000평입니다.



법인장님 방 블라인드에 까지 하이퐁 및 짱쵸 공단 지도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니 하이퐁에 애착이 많으신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곳에서 활동하다 보니 새삼 하이퐁 및 동부해안지역의 중요성을 새록새록 깨닫게 됩니다. 일단 하이퐁은 물류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철도, 항구(심해항), 공항, 고속도로 등 4가지를 모두 갖춘 유일한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이퐁 항구뿐 아니라 락후옌(Lach Huyen) 항구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항구는 중국으로 향하는 국제물류의 중간기착지 역할을 목표로 개발되는 심해항입니다. 이 밖에도 하이퐁 국제공항, 하이퐁-하노이 고속도로와 철도망도 있어서 비즈니스에 이점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선물한 초상화(좌)와 블라인드에 인쇄된 지도(우)>



짱쵸 공단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짱쵸 공단은 LG그룹사가 진출하면서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2015년 LG가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이 매우 성공적인 투자를 해 왔습니다. 지금은 블루컴, 희성전자 등 다수의 협력사들도 동반 진출해서 순조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이 짱쵸 공단에 많이 입주해 있기는 하지만 하이퐁에 짱쵸 공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VSIP공단에는 일본기업이, Deep C공단에는 중국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하이퐁 내에서도 작은 삼국지가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이퐁이 잇점이 많지만 부지 가격이 좀 비싸다는 평이 있지 않나요?

글쎄요. 짱궂 공단지만 보면 비싸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이퐁을 염두하실 때는 인접한 팡닌성, 하이퐁, 타이빙성을 같이 놓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같은 동부해안 산업권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팡닌성에 있는 공단지에는 하이퐁내에 있는 공단지보다도 더 항구와 가까운 공단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부해안 산업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면 저렴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또 공단에서 제시한 가격을 표준가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협상을 해서 가격을 조정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법인장님께서서는 내공이 꽤 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베트남과 인연을 맺어 오셨는지요?

네. 2010년부터 베트남 주재원 생활을 했으니 벌써 12년차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LG전자 판매법인장을 역임하였었고요. 영업마케팅만 해 오다가 우연치 않게 생산법인의 법인장을 맡게 되어 그간 습득한 지식을 여러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문화적으로 우리와 유사하고 물류, 투자인센티브 등 여러모로 아세안에서 가장 유망한 국가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제조기지로서의 전망도 밝지만 내수시장으로서의 잠재력도 큰 나라라고 검토를 하였고 그래서 제가 LG전자 법인장이던 시절 베트남으로의 투자 확대를 본사에 건의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즈니스 상에 애로사항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희는 일단 현지 정부하고는 아주 사이가 좋구요. 따라서 그런 정부나 행정관련해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36개 정도의 진출기업이 연합하여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현지정부 등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에다가 공급망 불안정으로 원부자재 확보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빨리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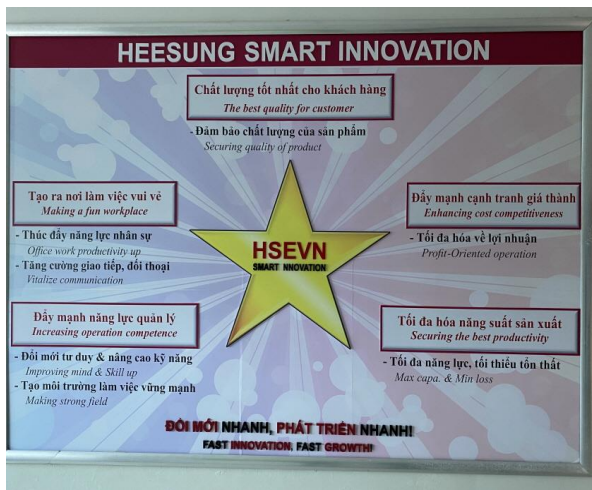
직원들과 또 지역사회하고는 어떻게 교류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짱궂 공단지 입주기업들은 LG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구요. 그런 점이 구심점이 되어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같은 행사도 지원을 하구요 각종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실 조성사업이나 초등학교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구요. 또 현지 인사하고는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다가갈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집으로 초대해서 교류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진출기업이 베트남에서 외국기업이 아니고 토종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베트남 분들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직원들이 흥미를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품질, 수익, 효율성, 경쟁력, 즐거운 일터라는 사내 5가지 목표가 있는데 ‘즐거운 일터’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직원들과 농담도 하고 편하게 지내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발굴이 되고 생산성도 높아 지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5가지 목표(좌)와 직원들 사진으로 구성된 Q[품질]포스터(우)>



베트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업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보통 베트남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준비 없이 급하게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베트남 투자도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진출해 있으신 분들이나 지인들에게 단편적인 정보를 듣고 뭔가를 하기 보다는 베트남의 산업정책, 법령, 문화, 비즈니스 관행 등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더욱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끝>



직원의 출퇴근중 교통사고시 회사는 보상을 해야할까?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지사장, 한국변호사 전현우

bhsjun@jplawvn.com | (84-4) 3724 5201~3

1. 들어가며

베트남 근로자들은 많은 경우 집에서 회사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짧게는 10~20분, 길게는 30분 이상을 회사로 출퇴근을 합니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운전은 흔한 일이지만 어찌 보면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비록 한국과 달리 빠른 속도로 달리지는 않더라도 교통규칙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여러가지로 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출퇴근길 교통사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출퇴근중 교통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보상기준은?

베트남 산업안전 관련 법령(이하 “산업안전법”)은 산업재해에 대해 업무중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이동중 발생한 사고로써 신체 등의 부상을 야기한 사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는 업무중 사고에 따른 부상 뿐만 아니라 근로지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 또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제39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자택에서 근로지로 이동하는 도중일 것
- 합리적인 경로에 해당할 것
- 합리적인 시간에 해당할 것
- 제3자의 과실 또는 확인될 수 없는 사유일 것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를 발생한 위치가 어디인지, 시간은 어떠한지, 누구의 과실인지 등에 대해 확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근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위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는 출퇴근시간과 거리가 먼 시간에, 예를 들어 퇴근 후 개인적인 용무, 식사 등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같은 경우라면 비록 출퇴근 길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의 과실 또는 확인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어떤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노동사회보훈국은 이에 대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출퇴근길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라면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법 제39조2항은 산업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사의 보상기준을 규정하며, 최소 40%의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능력을 5% ~ 10% 사이에서 상실한 경우 1.5개월의 급여
- 근로능력을 11% ~ 80% 사이에서 상실한 경우, 위에 더하여 각 0.4개월의 급여를 가산
- 근로능력을 81% 이상 상실한 경우 산업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소 30개월의 급여

3. 마치며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속에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출퇴근길의 교통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직원의 교통안전 교육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



죄짓지 말자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P씨는 청운의 꿈을 갖고 무작정 베트남으로 왔다. 운 좋게 바로 취직을 하고, 능력도 인정받아 회사의 재정을 도맡아 운영했다. 그런데 퇴근 후 재미 삼아 시작한 도박으로 인한 빚이 커지면서 지인에게 큰돈을 빌리고, 회삿돈까지 횡령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배 짜라, 몸으로 때우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막상 구속되어 베트남 교도소에서 몇 달을 지내니 열악한 환경과 스트레스로 어금니가 다 빠질 정도가 되었다. 결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모범수로 감형되어 10년 후 가석방되었다. 이후 바로 한국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P씨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하지 않아 은행 계좌는 이미 동결이 되었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였다.

사실관계를 좀 더 검토해야겠지만, 뉴스로 보도된 취업 사기 건만 보더라도 한국에서는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벌인 20억대 사기에 대해 징역 8년, 대학 교직원 행세를 하며 4억 원대를 편취한 건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데, 베트남에서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취직시켜주겠다고 25만 달러(약 3천만 원) 편취에 대해서는 징역 16년, 8억 원대 사기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마치 1반에서 떠든 학생은 담임선생님에게서 구두 경고를 받았는데, 2반에서는 30일 정학을 받은 것처럼 같은 범죄도 대부분 베트남의 형량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

베트남 투자 ·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 형사 소송은 국가가 범죄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으로, 개인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민사 소송과는 다르다. 같은 사안이라도 형사와 민사상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형사에서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라는 용어를, 민사에서는 원고, 피고, 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쓴다.



• 일부 범죄에 대한 한국과 베트남의 형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사기

한국 (형법 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베트남 (형법 174조)	③ 2억동(약 1,050만원) 이상 5억동(약 2,620만원) 미만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7년~15년의 징역에 처한다. ④ 5억동(약 2,620만원) 이상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12년~20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뇌물공여

한국 (형법 133조)	① ...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베트남 (형법 364조)	① 2백만동(약 10만원) 이상 1억동(약 525만원) 미만의 뇌물을 주거나 준비한 자는 ... 6개월~3년의 징역에 처한다. ④ 10억동(약 5,240만원) 이상의 뇌물을 ... 12년~20년의 징역에 처한다.

- 횡령

한국 (형법 355조, 356조)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베트남 (형법 353조)	① 2백만동(약 10만원) 이상 1억동(약 524만원) 미만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2년~7년의 징역에 처한다. ④ 10억동(약 5,240만원) 이상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20년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끝>



베트남 통관 HOT 뉴스

FTA활용지원센터 김태윤 관세사

< 항공편 운항 재개와 베트남 여행자 휴대품 반입규정 >

Q :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할 때 여행자휴대품으로 면세반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주류는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요?

A : 베트남으로 반입할 수 있는 면세 휴대품은 휴대품 총 가액이 10,000,000 VND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적용이 됩니다.

또한, 5,000 USD 초과 외화는 휴대 반입 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 외화는 은행에치 불가합니다. 귀금속은 3억 VND 초과시 반입이 불가하며, 한국과 다르게 향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주류는 20도 이상의 경우 1.5리터, 20도 미만은 2.0리터, 맥주 등 알코올음료는 3.0 리터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병, 통,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통관을 허용합니다.

담배는 썬련 200개비, 엽썬련 100개비, 기타 담배는 500g까지 허용됩니다.

반입불허품목은 무기, 화약, 폭발물, 군사기술장비, 드론, 독극물, 유해화학물,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유해한 아동장난감, 기타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입니다.

다만,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서 기내 및 수하물 반입 금지품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는 추가적으로 항공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관련 규정 >

Q : 베트남으로 중고기계장비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제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베트남 정부는 노후화된 설비의 베트남 유입을 막고,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19일, 베트남 정부는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총리령(Decision No. 18/2019/QĐ-TTg, 이하 Decision 18)을 발표하고, 새로운 중고기계 수입 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의 정의에 따르면 기계의 연령은 "연령 = (수입연도-제조연도)"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수입 연도"란 개별 기계가 베트남 항구에 도착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기업은 수출 일정에 주의해야 하는 데 검사 대상 당시 10년 된 기계가 이듬해 베트남의 한 항구에 도착할 경우 도착 월과 관계없이 10년 초과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기계의 사용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기업은 그 기계가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의 부록에 나와 있는 특정 분야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록은 특정 HS 코드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연령 제한을 제공합니다.

특정 분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10년 초과인 기계는 베트남의 총리령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합니다. 베트남 표준 또는 국제 표준에 따라 의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는 필수 사양 또는 최소 요건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 표준에 따른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베트남 표준 및 인증기관(STAMEQ 또는 QUACERT) 과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ISO 인증서는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 분야와 관련된 베트남, G7 국가 및 한국의 인증에 유용한 대안이 됩니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문서와 명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 기업 및 제조자명
- 제조연도
- 기계류 브랜드 , 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 기계류 적용 표준

검사원은 기계의 설치 및 운전 현장에서 서류 검토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10년 연식을 초과하는 중고기계를 수입하려는 과정에서 검사원들에게 연식 위장 등이 발각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PE기업 공급용 건설자재 면세 관련 이슈와 하도급의 면세여부 >

Q : 베트남 내 EPE기업으로 공급하는 건설용 자재를 해외에서 수입공급하는 경우의 관세면세 절차와 관련 규정을 알려주세요.

A : 최근 관세총국의 EPE기업의 '하도급업자' 공급 건설자재 면세부인 결정에 따라서, 다수의 기업이 아래 내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세무절차가 기존 관세총국에서 요구하는 면세요건입니다.

1. 통관절차 및 서류 관련

(1) 통관서류 관련

시행규칙38/2015/TT-BTC 제16조 및 개정시행규칙39/2018/TT- BTC 제1조 5항은 다음을 규정합니다.
“도급업자가 공장, 사무실 건설이나 장치 설치를 위하여 입찰결과에 따라 외국에서 비관세구역으로 직접 수입하는 물품 : 해당 도급업자를 공급자로 지정하거나 낙찰의 결과를 포함하는 수입제세를 제외한 낙찰가격이 확정된 비관세구역으로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통관절차 관련

시행규칙38/2015/TT-BTC 제75조, 개정 시행규칙39/2018/TT-BTC 제1조 51항은 다음을 규정합니다. “도급업자가 EPE기업의 공장, 사무실 건설이나 장비설치를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절차는 EPE기업 관할 세관지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급업자는 수입신고서를 본 시행규칙 부록 2의 양식에 맞게 신고하여야 하고, 각주(Phần ghi chú)에 계약번호를 해당 시행규칙 16조 3항 g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통관 후 물품은 EPE기업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도급계약 종료 30일 내에 EPE기업 및 도급업자는 수입물품의 수량을 EPE기업 관할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 시행규칙의 부록 5의 양식20/NTXD-DNCX/GSQL를 사용한다.”

2. 세무정책 관련

(1) 수입관세 관련

수출입세법107/2016/QH13 제2조 2항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비관세구역으로 수출되는 물품, 비관세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출입관세 부과대상입니다.

수출입세법107/2016/QH13 제2조 4항 c호에 따라, 외국에서 비관세구역으로 수입되어 비관세구역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비관세구역에서 다른 비관세구역으로 이전되는 물품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입세법107/2016/QH13 제4조 1항에 따라, 비관세구역이란 베트남 영토에 위치하지만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구역으로서 지리적으로 설정된 경계선과 외부로부터 하드펜스(Hard Fence)로 구분되고, 세관 및 관련 기관의 물품 반출입, 차량 및 승객 출입에 대한 세관검사 및 통제감독 관련 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관세구역과 그 외부 간의 물품 매매, 교환은 수출입 관계로 취급합니다.

기업이 외국에서 비관세구역 내 기업과의 계약 하에 공장, 사무실 건설 또는 장비 설치를 위한 물품을 수입하고, 비관세구역으로 직접 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관련

부가가치세법13/2008/QH12 제5조 20항에 따라, 시행규칙219/2013/TT-BTC 제4조 20항에 따라, 외국인과 비관세구역 간에 혹은 서로 다른 비관세구역 간 매매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관세구역 소재 기업이 외국에서 비관세구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내기업이 비관세구역 소재 기업의 공장건설을 위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비관세구역 소재 기업에게 물품을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당국은 부가가치세율 0%(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25/2018/TT-BTC 제2조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공제, 환급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세무당국과 접촉하여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위 절차 중 '하도급업자'가 '주도급업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21년 8월 관세총국의 공식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도급업자가 주도급업자(원청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는 국내기업)와 포괄입찰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입찰계약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입찰결과에 따른 투자자(비관세구역 입주기업)와의 공장, 사무실 건설 또는 장비 설치 관련 계약이행 시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관세총국의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EPE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주도급업자만이 면세규정 적용이 가능하고, 하도급업자의 경우 면세적용이 불가능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확인서 제도(한국 기준) >

Q :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OEM 구매 후 수출하는 경우, 직접 제조한 물품이 아닌 수출물품에 원산지 소명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A :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소비재를 수출하려는 기업이 다시금 늘어나면서, OEM 생산물품 혹은 외주물품을 수출판매하는 기업이 원산지증명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원산지(포괄)확인서라 부릅니다.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가능하기도 합니다. 원산지확인서 제도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에 매우 중요한 서류작업으로서 이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의 기초 자료가 구성됩니다. 다만, 제조자가 일반적으로 수출입에 관한 법률규정, FTA 관련 서류작업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서류를 불충분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자 입장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원산지확인서를 사용하게 되므로 그 검토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제조자가 제공한 서류를 검토없이 제출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제조자가 BOM, Part 리스트, 제조공정도 등 각종 제조공정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하고, 원재료별 HS코드도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간 ERP 등 내부 시스템을 연동하여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아 원산지 판정이나 서류작업 상의 정확도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지만, 규모가 영세하고 기존 수출경험이 없는 기업일수록 원산지확인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제조자로부터 제공받는 서류절차이지만, 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효력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는 수출자는 제조자로 하여금 원산지확인서 상의 데이터를 적절하게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된 정보를 기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며 세관당국의 원산지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바,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확인서가 정상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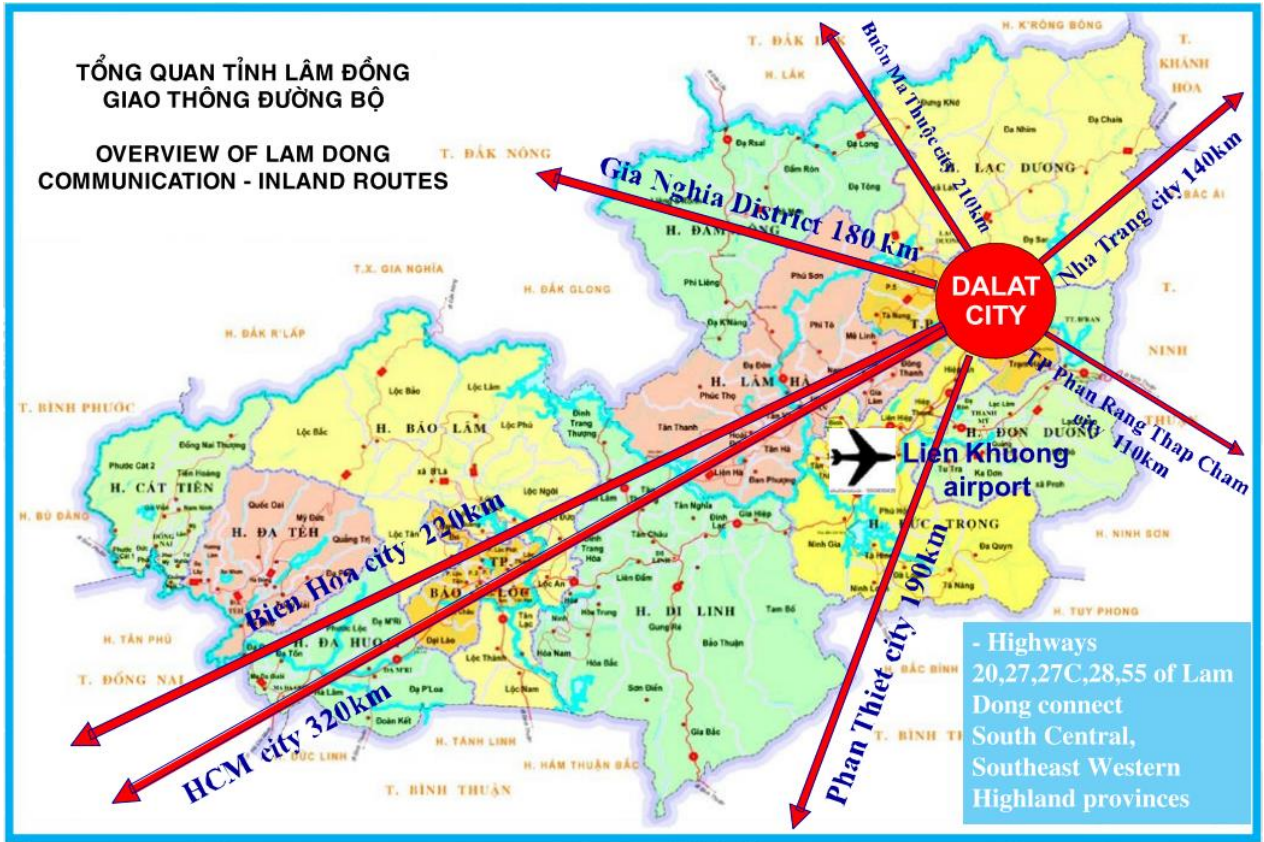
베트남 중남부 유망 투자지 - 럽동성

□ 럽동(Lam Dong)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9,774km² • 인구 : 1.3백만 명 • 도시거주 비율 : 41.3%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럽동성은 서부고원[떠이응우엔(Tay Nguyen)]의 남쪽에 위치해 있음. 남쪽 및 남동쪽으로는 빈투안(Binh Thuan)성, 동쪽으로는 카잉화(Khanh Hoa)성 및 닌투안(Ninh Thuan)성, 북쪽으로는 닥락(Dak Lak)성 및 닥농(Dak Nong)성, 서남쪽으로는 동나이(Dong Nai)성 및 빈프억(Binh Phuoc)성과 인접해 있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발전된 교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20번, 27번, 27C, 28번, 55번 국도는 럽동성을 호치민시, 비엔화(Bien Hoa)시, 냐짱(Nha Trang)시, 자응이아(Gia Nghia)시, 판티엣(Phan Thiet)시, 부온마투엣(Buon Ma Thuot), 판랑(Phan Rang)-탑짬(Thap Cham)시 등 인근의 시들과 연결함. 또한 721번, 722번, 724번, 725번 성도로는 중남부, 남동부 및 서부고원의 지방성들과 연결하기도 함 • 항공: 달랏(Da Lat)시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리엔크엉(Lien Khuong) 공항은 하노이시, 하이퐁(Hai Phong)시, 빈(Vinh)시, 다낭(Da Nang)시, 호치민시, 켄터(Can Tho)시, 타잉화(Thanh Hoa)성, 트어티엔후에(Thua Thien Hue)성 등으로 연결되는 국내선이 있으며, 중국의 우한, 태국의 방콕, 한국의 서울,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노선들이 있음
GRDP 성장률 / 1인당 GDP('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GDP 성장률 : 2.58% ▪ 성 1인당 GDP : US 2,917 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수출액 : US 6.96억 달러 / 총 수입액 : US 1.79억 달러 ▪ 산업별 성장률 : 공업/건설업(6.28%), 서비스업(-1.84%), 농수산업(4.8%)
산업구조('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건설업 : 20.03%, 서비스업 : 38.88%, 농수산업 : 41.09%
노무여건('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 : 60.5% ▪ 훈련된 근로자의 비율은 71.2%에 달하며, 2021년말까지 럽동성에는 777,963명의 근로자가 있고, 그 중 농촌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64%임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실업률은 1.51%로 총실업자수가 11,926명에 해당하며 이 중 도시실업률은 3.59%임
최저임금('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랏시, 바오록시: VND 4,160,000= US 180 달러(2급지) ▪ 득청(Duc Trong)현, 디링(Di Linh)현: VND 3,640,000= US 158 달러(3급지) ▪ 타지역: VND 3,250,000= US 141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21.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럽동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100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5.5억 달러 규모 ▪ (한국) 16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0.46억 달러를 투자하여, 럽동성에 투자한 국가들 중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2위, 투자금액 기준으로 1위 규모



□ 투자환경



럼동성의 편리한 교통시스템

○ 관광

- 달랏시는 온화하고 시원한 기후를 갖고있으며, 총리가 꽃 축제도시로 인정할 정도로 일년내내 많은 꽃이 피는 휴양지중 하나임
- 관광 명소: 3개의 골프 코스, 7개의 폭포, 7개의 큰 호수, 36개의 유료 관광지, 60개의 무료 관광지, 2개의 국립공원[(700㎢ 가 넘는 비둡 누이바(Bidoup Nui Ba) 국립공원, 272㎢가 넘는 갓띠엔(Cat Tien) 국립공원], 면적이 275,400ha 이상인 랑비양(Lang Biang)산 세계생물권보호구역, 2,000개가 넘는 고택을 보유함
- 숙박 시설: 2,750개의 숙박 시설이 있음(약 35,000개 이상의 객실)
- 축제: 꽃축제, 차축제, 떠이응우옌(Tay Nguyen)의 북축제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축제들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
- 다양한 관광 유형: 관광, 휴양, 생태, 모험 스포츠, 문화 및 역사, 회의, 세미나, 과학 연구, 농업 관광 등이 형성되어 있음



달랏(Da Lat) 꽃축제



반타잉(Van Thanh) 꽃마을



비둡-누이바(Bidoup - Nui Ba) 국립공원



까우닷(Cau Dat) 차밭

○ 농업

- 첨단농업 및 스마트팜 개발 관련 국가의 선도적인 지역임. 또한 달랏시는 채소, 꽃, 커피, 농업관광 등 4가지 상품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Đà Lạt-kết tinh kỳ diệu từ đất lành'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우며 인기를 끌고 있다.
- 첨단 농업 생산 면적은 63,370ha로 재배 면적의 21%를 차지함. 평균 생산 가치는 VND 4억 (US17,400 달러)/ha/에 달하며, 재배 산업 생산 가치의 40%를 차지함.
- 수출 시장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호주, 태국, 벨기에, 네덜란드, EU, 미국, 중국 등임

○ 산업

- 수확 농산물 가공 및 보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음
- 총 면적 352ha인 7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있으며 2개의 산업공단[록선(Loc Son) 공단(183ha), 푸호이(Phu Hoi) 공단(109ha)]이 있음



○ 천연자원

럼동성에는 8개의 토양 그룹이 있음. 25°미만의 경사를 가진 토지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25°이상의 경사를 가진 토지가 거의 50%를 차지함.

럼동성의 토지 품질은 매우 좋고 비옥함. 성의 총 토지 면적은 978,334ha이며 그 중 미사용 토지는 약 13,636ha, 비농업 토지는 54,551ha, 농업 토지는 910,146ha(전체 토지 면적의 93.03%를 차지)이며 다음과 같은 작물 재배에 적합함:

- 커피: (면적) 143,285ha, (생산량) 332,036톤/년
- 차: (면적) 22,557ha, (생산량) 204,031톤/년
- 봉나무: (면적) 2,966ha, (생산량) 32,191톤/년
- 캐슈넛: (면적) 16,197ha, (생산량) 11,327톤/년

○ 광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럼동성에는 25종의 광물이 있으며 그 중 보크사이트, بنت로나이트, 고령토, 화강암, 주석, 규조토(Diatomite), 이탄은 매장량이 많아 상업적 규모로 개발할 수 있음.

○ 산림

럼동성 산림은 580,871ha 규모로, 전체 면적의 59.43%를 차지함. 많은 강우량과 습한 기후 및 적절한 토양으로 인해 대나무 종은 대체로 빠른 성장을 함.

럼동성 산림은 베트남 식생의 전형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음. 포키에니아속(Fokienia), 자단, 2엽, 3엽 소나무와 같은 귀한 목재를 포함한 400가지 이상의 다양한 목재 유형이 있음.

또한 목재 제품의 가공 및 수출산업에 많은 기여를 하며. 목재 가공 산업 투자 유망 지역으로 알려짐.

○ 인센티브 지원 정책

1. 법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에 따른

- 면세 소득(4조): 바오록시와 총 10개의 성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및 축산물, 수산물 가공 및 소금 생산 협동조합 및 기업의 소득,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소득
- 15년간 세율 10%, 4년간 면세, 이후 9년간 50% 감세(15조, 16조): 총 10개의 성에서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얻은 소득
- 10년간 세율 17%, 최대 2년간 면세, 이후 최대 4년간 50% 감세(15조, 16조): 바오록시에서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얻은 소득
- 전체 프로젝트 시행 기간 동안 10% 세율 적용(15.2조):
 - 교육훈련, 직업훈련, 의료, 문화, 스포츠, 환경, 사범감독 분야 시행에서 발생한 소득
 - 판매 및 임대를 위한 사회주택 투자-사업 프로젝트 시행에서 발생한 소득
 - 바오록시에서 재배된 임산물, 산림 보호, 농산물과 수산물 재배/양식 및 가공, 동식물 품종의 생산, 번식 및 교배, 수확 후 농산물, 수산물 및 식품 보존에서 발생한 소득
 - 달랏시에서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소득



2. 토지세: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의결서(2014.05.15)에 따른

- a) 기본 건설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가 면제됨(최대 3년간), 관할 기관의 토지 임대 결정 발행일로부터 적용
- b) 기본 건설 기간의 토지 임대료 면제 기간 후:
 - 바오록시에서 투자 프로젝트: 7년간 면제
 - 총 10개의 현에서 투자 프로젝트: 11년간 면제
- c) 전체 임대 기간 동안 토지 및 수면 임대료가 면제되는 경우:
 - 특별 투자 우대 분야의 프로젝트
 - 관할 정부기관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노동자를 위한 주택건설 프로젝트 투자자는 주택임대 가격에 토지임대료를 포함 할 수 없음
 - 과학·기술 활동 관련 연구 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실험실, 과학·기술 및 기술 인큐베이터 센터, 실험시설, 실험의 생산 시설 등의 건설을 위한 토지
 - 상수도 건설을 위한 토지: 상수도 및 수처리를 위한 공사, 배관 및 상수도 배관망 공사, 상수도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지원 공사(행정/관리/운영 사무소, 공장, 재료 및 장비 창고)
 - 관할 정부기관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수출가공구내 공용 인프라 건설을 위한 토지

3. 수입세: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b-CP 의결서(2016.09.01)에 따른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을 위한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한 5년간 면세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021년 12월말까지 럽동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100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5.5억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있음.

○ 한국계 투자

2021년 12월말까지 럽동성 내 한국투자는 16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0.46억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있으며, 럽동성에 투자한 국가들 중 프로젝트 수 기준 2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1위 규모임.



○ 렴동성 내 10대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 달러)
1	축산 및 재배 Dalat Hasfarm Co., L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젖소 사육, 품종 생산 및 제공 우유 제품 가공 및 사업 야채와 농산물 재배, 가공 및 사업 꽃, 꽃 품종, 장식용 잎 재배 및 사업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48.6백만
2	달랏 쇼핑몰 Da Lat Land One Member LL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를 이전하거나 전대하기 위한 토지 및 기반 시설 개조에 투자 판매 및 임대를 위한 주택 및 공사의 건설에 투자 호텔 및 식당 사업 부동산 관리 서비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48.6백만
3	달랏 양모 방적 공장 Dalat Worsted Spinning Limited Comp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모 방적 생산 	스위스	38.5백만
4	The Dalat 1200 골프 코스 Acteam International Co., L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조트 관광지역, 5성급 호텔, 빌라, 골프 코스, 생태 관광지역, 놀이 공원 등 건설 및 사업 관광 서비스 제공 	중국	35.7백만
5	꽃과 농산물의 재배, 가공, 구매 및 수출 Apollo Co., L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과 농산물의 재배, 가공, 구매 및 수출 	사모아	34.2백만
6	장식용 꽃과 잎 재배 Dalat Hasfarm Co., L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식용 꽃과 장식용 잎 재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24.3백만
7	수출용 커피 구매 및 가공 Viet Nam Coffee B&V Investment Company Limi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용 커피 구매 및 가공 	불가리아	12.7백만
8	베트남 비단 및 견 제품 생산 SUNFEEL Vietnam Co., L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단 및 견제품 생산 	중국	11.4백만
9	종자 생산 및 연구 지역 Bejo Vietnam Co., L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자 생산 및 연구 지역 	네덜란드	11.2백만
10	장식용 꽃과 풀 생산 Japan Vietnam Agritech Farm Company Limi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식용 꽃, 풀 및 농산물의 생산, 재배, 구매 및 수출입 	일본	9.7백만



□ 공단 현황

○ 주요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 년도	면적 (ha)	위치	주요 정보	투자자 / 개발사
1	록선(Loc Son) 공단 - 바오록(Bao Loc)시	2003	185	달랏시에서 110km, 리엔크엉 공항에서 80km, 호치민시 도심에서 190km, 사이공항구에서 190km 떨어져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료: 0.47USD/m²/년 인프라 사용비용: 0.16 USD/m²/년 투자유치분야: 광산 가공 산업, 건축 자재 생산 산업, 농산물/임산물/식품 가공, 섬유, 기계 등 	록선(Loc Son) 공단 인프라 개발 회사
2	푸호이(Phu Hoi) 공단 - 득청(Duc Trong)현	2005	174	달랏시에서 35km, 비오록시에서 80km, 리엔크엉 공항에서 3km, 빈투안성의 항구에서 130km 떨어져 있으며 20번 국도 근처에 위치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료: 0.23USD/m²/년 인프라 사용비용: 0.16USD/m²/년 투자유치분야: 관광 제품 생산, 식품/야채/임산물/수 산물/술/과자, 건축 자재 생산, 고급 벽돌, 목재 제품 제조, 야금, 화학, 포장 등 	럼동성 공단관리 위원회
3	푸빈(Phu Binh) 공단 - 득청(Duc Trong)현	2020	246	달랏시에서 45km, 20번 국도에서 3km, 리엔크엉 공항에서 10km 떨어져 있음. 자우제이(Dau Giay)- 리엔크엉 고속도로 근처에 위치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및 건설 중 	N/A



□ 투자 유망분야

럼동성은 물류 시스템, 청정산업, 첨단 농업, 가공 산업 및 생산 기계, 도시 인프라, 관광, 서비스 등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 유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럼동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연락처/이메일
1. 럼동성 투자계획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263-382-2311 Email: skhdt@lamdong.gov.vn
2. 럼동성 투자, 무역 및 관광진흥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263-383-2964 Email: txttdttmdl@lamdong.gov.vn Website: dalat-info.gov.vn
3. 럼동성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263-354-9103/06 Email: bqkcn@lamdong.gov.vn Website: liza.lamdong.gov.vn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2. 5. 20 기준 누계		2022. 1. 1 ~ 5.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288	79,060.88	112	151.4	2,060.21
일본	4,852	64,910.59	67	428.7	944.93
싱가포르	2,899	68,682.71	73	798.39	2,957.40
대만	2,857	36,022.84	26	296.45	544.23
홍콩	2,073	28,622.14	34	263.25	711.52
버진아일랜드(영)	884	22,097.91	8	43.95	116.09
중국	3,390	22,186.38	75	505.29	1,133.69
말레이시아	675	12,979.38	9	0.54	137.01
태국	654	13113.63	10	23.65	167.59
네덜란드	386	13,574.75	9	15.89	644.07
미국	1,167	10,872.59	34	129.72	175.38
기타	5,864	54,017.91	121	1,459.03	2,118.67
전체 합계	34,989	426,141.69	578	4,116.26	11,710.79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2. 5. 20 기준 누계		2022. 1. 1 ~ 5.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672	252,009.75	148	2,676.68	6,814.20
2	부동산경영	1,029	65,319.10	29	834.67	2,995.28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80	36,462.38	3	91.16	194.94
4	호텔, 외식서비스	898	12,727.66	5	1.09	26.69
5	건설	1,772	10,933.05	8	89.61	127.94
6	도소매, 유지보수	5,720	9,679.26	171	80.11	242.72
7	물류운수	935	5,949.04	15	101.18	186.31
8	채광	109	4,900.37	1	1.98	18.78
9	교육, 양성	606	4,569.74	3	4.39	140.43
10	정보통신	2,536	4,798.26	76	103.9	397.93
11	과학기술, 전문활동	3,883	4,240.77	101	87.83	374.81
12	농, 임, 수산	523	3,839.96	6	18.96	32
13	예술 오락	137	3,416.24	-	-	0.6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3	2,908.70	1	0.45	8.27
15	의료와 사회복지	152	1,742.79	-	-	4.89
16	행정, 지원 서비스	523	999.5	9	2.12	18.4
17	금융, 은행, 보험	79	912.57	1	22.05	125.18
18	기타서비스	145	721.47	1	0.1	1.43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34,989	426,141.69	578	4,116.26	11,710.79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9	2020	2021	2022.5(누계)
수 출	2,641.8	2,826.5	3,363.1	1,532.8
수 입	2,530.7	2,627	3,322.3	1,528.5
무역수지	111.1	199.5	40.8	4.3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5(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1,378	51,183	57,537	24,781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35,925	44,576	50,828	22,513
기계/플랜트 및 부품	18,303	27,193	38,344	17,290
섬유/직물제품	32,850	29,809	32,753	14,999
신발류	18,320	16,791	17,751	9,429
원목 및 목제품	10,647	12,371	14,809	6,989
철강제품	4,210	5,258	11,795	2,017
수송수단 및 부품	8,505	9,090	10,616	4,816
수산물	8,543	8,412	8,886	4,705
원사(Yarn)	4,176	3,736	5,612	2,373
기 타	71,332	74,235	87,379	43,377
합 계	264,189	282,654	336,310	153,28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5(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51,353	63,971	75,440	36,247
기계/플랜트 및 부품	36,748	37,251	46,296	18,35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4,615	16,645	21,434	8,849
의류(원단)	13,276	11,875	14,324	6,646
플라스틱 원료	8,991	8,397	11,685	5,625
각종 철강	9,507	8,066	11,523	5,589
기타 비금속	6,385	6,052	8,611	4,159
플라스틱 제품	6,538	7,274	7,959	3,386
화학제품	5,419	5,741	7,627	4,175
화학물질	5,128	5,016	7,735	3,746
기 타	95,110	92,412	119,600	56,080
합 계	253,070	262,700	332,234	152,85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5(누계)
1	미국	47,526	61,347	77,077	96,293	45,889
2	중국	41,268	41,414	48,905	56,009	21,978
3	한국	18,205	19,720	19,107	21,945	10,221
4	일본	18,851	20,413	19,284	20,128	9,345
5	홍콩	7,955	7,156	10,437	11,996	4,448
6	네덜란드	7,076	6,881	6,999	7,686	4,035
7	독일	6,869	6,555	6,644	7,286	3,604
8	인도	6,542	6,674	5,235	6,259	3,411
9	태국	5,494	5,272	4,917	6,161	2,916
10	영국	5,776	5,758	4,955	5,765	2,380
	기타	77,921	82,999	79,094	96,782	45,062
	합계	243,483	264,189	282,654	336,310	153,28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5(누계)
1	중국	65,438	75,452	84,187	109,874	49,605
2	한국	47,497	46,935	46,895	56,155	27,780
3	일본	19,011	19,526	20,341	22,648	9,858
4	대만	13,228	15,173	16,701	20,772	10,228
5	미국	12,753	14,365	13,713	15,270	6,108
6	태국	12,023	11,656	10,968	12,564	5,689
7	말레이시아	7,450	7,291	6,575	8,148	4,036
8	오스트레일리아	3,984	4,456	4,677	7,946	3,851
9	인도네시아	4,918	5,703	5,382	7,587	3,658
10	인도	4,147	4,538	4,435	6,950	3,245
	기타	46,238	47,975	48,826	64,320	28,797
	합계	236,687	253,070	262,700	332,234	152,85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5(누계)
수출	48,629(1.8)	48,178(-0.9)	48,510(0.7)	56,729(16.9)	27,027(27.1)
수입	19,632(21.4)	21,071(7.3)	20,579(-2.3)	23,965(16.5)	11,522(17.3)
무역수지	28,997	27,107	27,931	32,763	15,505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	2022.5(누계)
반도체	10,939(18.5)	10,730(-1.9)	11,501(7.2)	14,026(22)	6,948(40.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909(20.9)	7,970(-10.5)	9,552(19.9)	12,050(26.1)	5,056(35.2)
석유 제품	1,976(-0.6)	2,196(11.2)	1,196(-45.5)	1,157(-3.2)	1,869(290.9)
합성수지	1,659(15.1)	1,624(-2.1)	1,615(-0.6)	2,415(49.5)	1,285(40.2)
무선통신기기	2,631(-19.9)	2,932(11.4)	3,460(18)	3,315(-4.2)	1,069(-19.2)
기구부품	2,332(-10.7)	2,230(-4.4)	2,241(0.5)	2,405(7.3)	1,001(13.7)
철강판	1,049(6.5)	1,157(10.4)	1,052(-9.1)	1,267(20.4)	521(6.2)
자동차부품	474(23.3)	668(40.9)	673(0.8)	924(37.3)	488(25.8)
플라스틱 제품	1,205(4.6)	1,210(0.4)	1,115(-7.8)	1,174(5.3)	465(4.3)
편직물	1,107(-1)	996(-10)	851(-14.6)	931(9.4)	391(1.1)
기타	16,341	16,465	15,255	17,065	7,935
합계	48,622	48,178(-0.9)	48,511(0.7)	56,729(16.9)	27,027(27.1)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	2022.5(누계)
무선통신기기	4,838(22)	5,691(17.6)	4,980(-12.5)	5,579(12)	2,843(28.7)
의류	3,570(24.2)	3,646(2.1)	3,145(-13.7)	3,393(7.9)	1,407(8.1)
컴퓨터	539(-3.7)	679(25.9)	1,270(87.1)	1,659(30.6)	965(1.4)
신변잡화	980(23.1)	1,053(7.4)	1,029(-2.2)	984(-4.4)	508(-0.8)
목재류	793(55.1)	657(-17.1)	632(-3.9)	755(19.5)	405(31)
산업용 전기기기	417(31.5)	479(14.8)	574(20)	725(26.2)	382(2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37(88.4)	1,197(5.2)	1,027(-14.2)	876(-14.7)	353(12)
반도체	396(5.8)	471(19.1)	561(18.9)	750(33.8)	305(12)
기구부품	445(-10.4)	512(15.1)	481(-5.9)	624(29.6)	278(21.8)
영상기기	364(-9.1)	356(-2)	406(14)	460(13.2)	229(1.5)
기타	6,164	6,331	6,474	8,161	3,847
합계	19,643(21.4)	21,072(7.3)	20,579(-2.3)	23,966(16.5)	11,522(17.3)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1~2022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1년(연간)	%	7.6	5.6	3.1	3.7	2.6	
	2021년 4Q	%	6.1	7.7	3.6	5.0	5.2	
	2022년 1Q	%	3.7	8.3	5.0	5.0	5.0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121.8	N/A	118.1	N/A	4.8
		2022년 4월	-	125.0	92.4	120.5	N/A	9.4%
		2022년 5월	-	N/A	358.2	N/A	N/A	10.4%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1년(연간)	-	50.7	N/A	112.1	51.7*	N/A
		2022년 4월	-	50.3	54.3	122.6	51.9	51.7
		2022년 5월	-	50.4	54.1	N/A	50.8	54.7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1년(연간)	-	102.1	N/A	90.5	98.4*	N/A
		2022년 4월	-	106.5	N/A	N/A	113.1	N/A
		2022년 5월	-	N/A	N/A	N/A	128.9	N/A
	소매판매	2021년(연간)	-	90.7	N/A	135.5	198.1*	3.8%
		2022년 4월	-	95.8	1.9%	157.3	239.2	12.1%
		2022년 5월	-	N/A	2.2%	N/A	239.7	22.6%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2.3	4.5	2.5	106.5*	1.8
		2022년 4월	%	5.4	4.9	2.3	110.0	2.6
		2022년 5월	%	N/A	5.4	N/A	110.4	2.9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1년(연간)	%	118	N/A	5.6	N/A	9.2(누계)
		2022년 4월	%	N/A	N/A	N/A	4.1	△11.7(누계)
		2022년 5월	%	N/A	N/A	N/A	N/A	△16.3(누계)
고용	실업률	2021년(연간)	%	2.6	N/A	4.6	N/A	4.0
		2021년 4Q	%	2.2	6.9	3.9	N/A	3.6
		2022년 1Q	%	N/A	6.2	N/A	5.8	2.5
무역	수출증가율	2021년(연간)	%	19.1	N/A	26.0	41.9	19.0
		2022년 4월	%	19.2	6.0	20.7	47.8	25.0
		2022년 5월	%	26.9	N/A	30.5	27.0	16.4
	수입증가율	2021년(연간)	%	20.4	N/A	23.3	38.6	26.5
		2022년 4월	%	24.3	22.7	22.0	22.0	15.5
		2022년 5월	%	38.7	N/A	37.3	30.7	12.9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문의 | 개발협력실 T. 02-3460-7532/7525 / E. csr@kotra.or.kr

2022년 하반기 글로벌 ESG+ 사업모집

2022.06.02(목)~

기업지원금

기업지원금은 **기부가치, 경비 신청, 사업방식별 한도**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산정됩니다.

기부가치

기부제품의 원가, 참가기업 내부직원 인력 투입내역, 그 외 참가기업 직접 부담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검토하여 산정

* 참가기업 내부직원 인력투입 기준은 공고문 단가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경비신청

KOTRA에 대한 경비신청사항은 제출 복수 견적서 기준

* 경비신청은 제한된 비목내 신청가능합니다.
제한 비목(운반보관료, 소요기자재, 외부강사 항공임·강의료·채택지원비, 콘텐츠제작비, 수리비)

사업방식별 한도

제품·장비·기자재 (유형) 기부 (1,500만원)
기술·서비스(무형) 교육 프로그램 (1,500만원)
유휴장비 이전 및 기증 (5,000만원)

지원방법

사업 수행 > 지출내역 및 정산서류 제출 > 회계검토 > 최종 기업지원금 확정 > 기업지원금 지급

* 기업지원금 지원은 사후 정산 되는점 참고바랍니다.

심사과정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사업심의 사업 선정발표

* 사업 선정발표까지 약 1달 소요되는점 참고바랍니다.

심사기준

사업 품목 적합도
해외진출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ESG및 SDGs 부합도

가점대상

채용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지방소재기업,
ESG 우수기업 각 가점 2.5점 부여



모집대상

해외 ESG 활동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 벤처기업 등 또는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 * (대기업 및 협회) 동반성장형 사업 지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사업비 지원)
- ** (공공기관 및 공기업) 현지 기부 행사 지원 (사업비 미지원)

사업 신청 방법

KOTRA 홈페이지 모집공고 신청하기, 공고문 내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csr@kotra.or.kr으로 메일 접수

지원내용

KOTRA 경비지원 항목에 따른 기업지원금 지원
무역관을 통한 글로벌 ESG활동 현지 행사 지원

